

가 11월 30일이다. 그래서 12월 1일로 개국일을 맞추려 하는 것이다. 끊어진 방송을 이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연내 개국을 공언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결정됐다.

박영균 채널A는 10월 5일 하얏트호텔에서 매체설명회를 한다. 국민에게 이런 콘텐츠를 선보인다 소개하는 자리로 보면 되겠다. 프로그램과 광고판매에 대한 윤곽은 잡혀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보틀넥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국민 대부분이 종편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종편 방송이 이런 모습으로 갈거다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편성 등을 먼저 국민에게 알리게 순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광고판매와 관련된 사항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정부 당국에서도 논의 중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초청대상은 광고주, 광고회사, 매체관련 분들인데 그분들께 일차적으로 이런 방송을 할 거다 보여 주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성관 MBN은 10월 6일 종편방송센터 시설이 완공된다. 이날 전직원을 대상으로 종편MBN방송센터 준공식 및 전진대회 행사를 한다. 이로써 MBN은 언제든지 채널 번호만 나오면 바로 개국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콘텐츠 걱정도 없다. 매체설명회는 10월 24일 “우리가 준비한 종편 시설이 이정도입니다”하는, 소박하지만 기존 케이블PP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뜻에서 종편방송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당일 오찬은 광고회사, 만찬은 광고주를 모시고, 비전, 프로그램 라인업 등을 발표한다. 광고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하더라도 ‘종편 방송이 이 정도 규모로 출범하니 개국 광고는 준비해 주셔야 할 것이다’하는 정도만 예고해 드릴 계획이다.

박영균 12월 1일 개국 당일에는 4개사가 공동으로 축하쇼를 하기로 했다. 세종문화회관과 고려대학교에서 이원생방송으로 할 계획이다.

콘텐츠 전략

김상훈 각 사의 입장에 따라 매체설명회의 성격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콘텐츠에 대한 자신감도 비추셨



김상훈
한국광고협회장
인하대 교수

는데, 결국 콘텐츠 경쟁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콘텐츠와 시청률, 광고매출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 길러콘텐츠를 비롯해 각사별 콘텐츠 전략에 대해 소개 바란다.

박영균 채널A 방송 모토가 재미와 품격이 있는 방송'이다. 이에 부합하는 외주 콘텐츠 업체를 물색하고 있고, 일부는 계약을 했다. 제일 투자가 많은 드라마 분야는 일부 투자가 이루어진 상태고, 개국 작품뿐만 아니라 내년 초 선보일 블록버스터급 작품들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도, 예능, 교양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아이디어를 준비하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자본금 4천억 원 중에 콘텐츠 제작에 어느 정도 투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민 중이다. 리스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콘텐츠 펀드라던지, 외국과의 합작, 또는 문화부의 글로벌 펀드 등 여러 자금 재원 조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종편의 출현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본다. 일본, 대만, 유럽 등도 보면 방송 채널이 다양하지 않은가. 국내의 경우 여러 여건상 이루어지지 않던 것이 이번엔 한꺼번에 되다보니 과열 양상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스카웃 경쟁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가야된다고 본다. 사실 내년 경제 상황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무리수를 두는 게 방송계와 시청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 같고 해서 조심스럽게 전